

한교연 양병희 대표회장 동성애(퀴어축제)반대 일인시위

동성애 퀴어문화축제를 허가한 박원순 서울시장 각성하라 결사반대

한교연회연합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가 동성애 퀴어문화축제 반대 일인시위에 나섰다. 양 대표회장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서울시장사자점 앞에서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일인시위를 벌이고 이를 허가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병희 대표회장은 이날 다수의 시민들과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퀴어문화 축제 반대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답변했다. 또한 한교연 소속 목회자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동성애 축제 허가한 박원순 시장 각성하라' '퀴어축제 결사반대' '규정 무시, 조례 무시, 봉선사역명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양병희 대표회장과 임직원은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반대 집회시위를 벌이고 있는 예수재단(대표 임요한 목사) 관계자를 만나 위로 격려하고 기도했으며, 동성애 처벌금지법 반대를 위한 서명부에 서명했다.

이날 양병희 대표회장은 일인시위 현장을 방문한 성명사에서 "6월 9일, 이곳 서울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는 분명 서울시민 전체를 위한 축제가 아니다. 숨어서 동성애를 즐기고자 하는 자들이 벌거벗고, 누드퍼레이드를 벌이고, 서울 한복판에 물러나와 자기를 성취하는 정당한 행위를 드러내고, 동성애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해마다 동성애 축제는 많은 논란을 불러왔고,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은, 신교재라 할지라도 당연히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원칙을 무시하고 동성애자들의 편을 들어주었다"며 서울시장의 처사를 비난했다.

양병희 대표회장은 "동성애자들



은 기독교계가 왜 사회적 약자인 자신들의 권리를 억압하느냐고 항의하고 있으나 우리는 자들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저들이 음란한 성 정체성에서 벗어나, 제대로 치료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 신촌 등지에서 열린 동성애축제에서도 참가자들이 벌거벗고, 누드퍼레이드를 벌였고,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충돌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축제를 아무 문제도 없다고 서울시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해마다 동성애 축제는 많은 논란을 불러왔고,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은, 신교재라 할지라도 당연히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원칙을 무시하고 동성애자들의 편을 들어주었다"며 서울시장의 처사를 비난했다.

양병희 대표회장은 "동성애자들

은 기독교계가 왜 사회적 약자인 자신들의 권리를 억압하느냐고 항의하고 있으나 우리는 자들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저들이 음란한 성 정체성에서 벗어나, 제대로 치료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 신촌 등지에서 열린 동성애축제에서도 참가자들이 벌거벗고, 누드퍼레이드를 벌였고,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충돌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축제를 아무 문제도 없다고 서울시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해마다 동성애 축제는 많은 논란을 불러왔고,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은, 신교재라 할지라도 당연히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원칙을 무시하고 동성애자들의 편을 들어주었다"며 서울시장의 처사를 비난했다.

양병희 대표회장은 "동성애자들

은 기독교계가 왜 사회적 약자인 자신들의 권리를 억압하느냐고 항의하고 있으나 우리는 자들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저들이 음란한 성 정체성에서 벗어나, 제대로 치료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 신촌 등지에서 열린 동성애축제에서도 참가자들이 벌거벗고, 누드퍼레이드를 벌였고,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충돌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축제를 아무 문제도 없다고 서울시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해마다 동성애 축제는 많은 논란을 불러왔고,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은, 신교재라 할지라도 당연히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원칙을 무시하고 동성애자들의 편을 들어주었다"며 서울시장의 처사를 비난했다.

양병희 대표회장은 "동성애자들

한기총, 8·15광복 70주년 행사 시청서울광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준 목사, 이하 한기총)는 1일(금) 오전 8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26-4차 임원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회원집행 결과 34명 참석, 9명 위임으로 성수가 되었고, 개회선언, 전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광복 70주년 행사(준비위원장 최성규 목사)의 건으로 2015년 8월 15일(토) 시청 앞 서울광장(예정)에서 열기로 하고, 행사를 1, 2로 나누어 행사 1은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 한국교회 연합기도회, 행사 2는 3.1 운동 정신 이어받아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 국민대화합 대회(주제: 화해, 평화, 미래)를 7개 종단이 함께 하는 계획과 조지 구상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세부적으로 내용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위원회와 보고를 추가로 받기로 하였다.

동성애 축제 반대와 건과 봉선사역명 변경의 건은 각각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서울시장, 강남구청장과의 면담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을 보고하고, 동성애 축제와 봉선사역명에 대해 강력한 반대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작은 결산 행한가 가정 만들기 운동의 건은 여성가족부에 업무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협약대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선교위원회 선교대의 건으로 2015년 10월 5-9일 제1회 할렘루야 인도차이나반도 선교대의 준비 사항을 보고하고, 인도차이나반도 5개국(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을 대상으로 선교대회(선교집회, 한인선교사 세미나), 스포츠선교대회(할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준 목사

제26-4차 임원회의에서 광복 분단 70주년, 국민대화합 대회로

교육)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네발대지전 구호 보급의 건은 5월 17일(주일)까지 2억 2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모든 회원 교단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보급과 관련하여 국민일보와 CTS, CBS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교종제도 폐지와 추진의 건으로 현 51개 교정시설 구제, 교도소와 9개 소년원의 5만 여명의 수용자들의 효율적인 교화활동을 위한 교종제도의 폐지와 추진에 대해서 안건으로 받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WEA 관련 건으로 WEA 총회 재추진에 대해서는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김탁기 목사(공동교회)가 기도하였고, 대표회장 이영준 목사는 마가서 6장 8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회의는 지덕 목사(경주대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한국교회예배국인문운동본부(이사장 임원순 목사)는 네발 대지전 피켓을 위한 성경을 한기총으로 기탁하였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경목총회 제38대 총회장 임후보 공고

표어: "대한민국 13만 경찰과 60만 가족을 그리스도에게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1절)
한국경목총회 선관위원회는 정관 12조 2항의 의거하여 제38대 총회장 임후보자는 후보등록기간 안에 구비서류를 갖추고 한경총 사무국에 후보등록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장 김진수 목사 대광고회	선관위원회 위원장 이효은 목사 인문보통사역의총 총재	총무 사무총장 홍효표 목사 사랑의교회	임원 명단 총회장 김진수 목사 경목총회총장 조종목 목사 전전총회장 임선형 목사 중경총회장 허시 목사 직전총회장 이상재 목사 부회장 김홍순 목사 부회장 김동환 목사 부회장 이창식 목사 부회장 유철구 목사 부회장 김길성 목사 부회장 남기태 목사 부회장 강민석 목사 부회장 조규환 목사 부회장 김복환 목사 부회장 임기성 목사 부회장 박동호 목사 부회장 주광삼 목사 부회장 이기동 목사 총무 사무총장 홍효표 목사 부총무 조연기 목사 부총무 박종욱 목사 합동총무 임혜숙 목사 서기 박양우 목사 부서기 최영진 목사 회록서기 우영문 목사 회계부서기 최화영 목사 회계 임미선 목사 부회계 정문선 목사 감사 이효은 목사 지도교로 지영철 목사 지도교로 황원진 목사(대신대학원총장) 지도교로 권다영 목사 지도교로 박원규 목사 정기간 목사(경목총회/독일/지저스타임즈 언론대외) 의료선교대외 박종욱 목사
--	---	---	---

● 한국경목총회의 기관지인 경찰기독일보 및 지저스타임즈는 경목총회 마크가 새겨진 기저지를 발급해 드립니다. 한경총 언론 발전과 문서교를 위하여 기저지를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명함사진, 전전화, 차량사진, 컵받침, 지저스타임즈, 주문번호, 주문번호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어린 천사들의 하모니

‘제5회 CTS대한민국 어린이 합창제’

6월 2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진행

순수복음방송 CTS기독교TV(회장 김경철 이하 CTS)는 오는 6월 2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제5회 CTS 대한민국 어린이합창제’를 개최한다.

CTS 창사 20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성대하게 치러질 ‘제5회 CTS 대한민국 어린이합창제’는 개그맨 고명환과 배우 박은신의 사회로 △ 동신교회 ‘나눔의 어린이 영아성가대’ △ 새중앙교회 ‘새중앙 뉴드림 어린이 합창단’ △ 안산동산교회 ‘동산소년소녀 합창단’ △ 여의도순복음교회 ‘엔젤스 합창단’ △ 우이제일교회 ‘유치부 새

악 성가대’ △ 한성교회 ‘한성 어린이 선교 합창단’ △ CTS 수원소년소녀 합창단 △ CTS 소년소녀 합창단(참가) 등 총 8팀이 참가하며, 광림교회 ‘Kwanglim English Musical Manna’가 영어 뮤지컬로 특별 출연하여 감동적이고 발달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 거장 윤학원 감독(CTS 예술감독 겸 CTS소년소녀합창단장)의 지휘아래 4백여 명의 참가팀 전원이 ‘예수께로 가리’를 연창 합창하여 잔잔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CTS 광고사업팀은 “올해로 제 5



회를 맞는 CTS 대한민국 어린이합창제는 전체되어가는 교회학교와, 소풍과 배려가 필요한 한국 사회에 합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CTS의 중요한 문화사’이라며 “전국 어린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찬양으로 화합하는 대 축제의 현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5회 CTS 대한민국 어린이합창제’ 실행은 CTS기독교TV를 통해 전 세계로 방송될 예정이며 CTS는 각 지역 케이블과 SkyLife 173번, IPTV(KT QOOK 236번, SK BTV 551번, LG U+ 180번), 해외 위성, CTS APP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광복 70주년 기념’ 평화통일 대토론회 열려

“통일준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놓고 종교계 인사들의 제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이하 한기총) 등의 종교계가 공동주최한 ‘광복 70주년 기념 평화통일 대토론회’가 8일(월) 행복한 통일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19일(화) 오후 서울을 다들라자호텔에서 진행됐다.



토론회는 개회식과 두 번의 세션으로 구성됐고, 각계에서 총 10명이 토론자가 참여했다. 개회식에는 기독계에서 최성규 목사(한기총 총경대표회장)와 황용대 회장(NCCK)이 환영사를 전했다.

제2세션 “통일준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종교계의 제언”에는 엄기호 목사(한기총 남북교회협력위원장)가 토론자로 나섰고,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담임, 제2세션 사회), 노정선 목사(KNCCK 해례종일위원회의 부위원장, 제2세션 토론) 등이 함께 했다.

먼저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전한 최성규 목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통일지상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자유 없는 통일, 민주 없는 통일, 평화 없는 통일, 행복 없는 통일은 진정한 통일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소원은 자유, 평화, 화해, 사랑의 가치를 담은 교회를 찾아 일치하는 통일이요, 진정한 자유인 통일이요,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엄기호 목사는 “통일에 대한 가치의 교육도 필요하다.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역사, 화해, 평화, 사랑의 가치를 담은 교육은 다음 세대에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특별히 한국 기독교는

없는 평화, 갈등 없는 화해, 분열 없는 협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상호 협력과 화해, 평화의 단계를 밟아야 한다. 협력의 단계에서 화해의 단계로, 화해의 단계에서 평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제2세션에서 토론자로 나선 엄기호 목사는 “통일에 대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공유해야 한다. 각자가 생각하는 통일의 모양이 다를 수 있으나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며 “나와는 다른 생각을 틀렸다고 하지 않고 인정해 주고, 그 마음과 생각을 가운데서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 일치하는 통일이요, 진정한 자유인 통일이요,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엄기호 목사는 “통일에 대한 가치의 교육도 필요하다.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역사, 화해, 평화, 사랑의 가치를 담은 교육은 다음 세대에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특별히 한국 기독교는

교회 교육을 통해 복음의 중요한 가치인 화해와 용서, 통합, 형제 사랑 등을 성경적으로 접근하도록 교육해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통일에 대한 보다 수준 높은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북 정책수립을 위한 종교계의 단일기구 구성과 현재 진행 중인 기독교계의 ‘교회 예산 1% 통일기금’ 조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들 외에도 홍사덕 대표상임의장(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남궁성 교정원장(원불교), 김주원 교문(한국경제연구원), 김병호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박종철 선임연구위원(통일연구원), 박종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문원 의원(새누리당), 홍승준 위원장(북한민주화위원회), 이은영 총무(한국천주교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정인호 분부장(원불교 한민족화해운동), 진로 사무총장(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등이 참여했다.



데이빗 류, 미주한인 첫 LA 시의원 탄생

한인 이민 112년만에 LA 시의원 첫 입성 - 한인 정치력 성장의 결과

미주 이민사회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LA 시에 드디어 한인 시의원이 탄생했다. LA 시에서 한인 시의원을 배출하는 것은 한인사회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으며, 한인 정치력 성장의 잣대이기도 했다. 그동안 미주 지역에서 주 상, 하원을 비롯하여 주요 도시의 시장과 시의원을 몇몇을 배출했으나,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이면서 미주 한인사회의 중심이었던 LA 시에서만큼은 주류사회 및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기득권을 넘겨주지 못했다. 그 오랜 숙원을 39세의 약관인 데이빗 류가 이룬 것이다.



며, 기존 정치권에 실망한 민심을 파고 들어가는 정책 대결을 벌이는 전략이 된 듯, “콜린 정지”를 강조하며, 특히 “건설업자들의 정치 후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공약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데이빗 류의 시의원 당선에서는 LA 시 한인유권자들과 커뮤니티의 노력도 한 몫 했다. 당선 확정된 뒤 류 후보자는 가장 먼저 “한인사회와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며 “한인 사회가 함께 이룬 승리”라고 한인들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사를 했다. 4지구 지역의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 지역을 집집마다 방문하며 선거자료를 배포했으며 투표일에 돌린 한인표에 힘입어 몇 주 후를 1603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당신이 확정한 순간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다”는 류 당선자는 “이웃 주민, 커뮤니티의 소중한 한 표로 당선이 된 만큼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될 것이다. 시 의회를 변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자신을 지지해 준 한인사회에 부끄럽지 않은 시의원

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LA 시는 400만명을 육두는 인구수에 시의원이 15명밖에 없어서 시의원의 과원은 그 만큼 크다. 시의원이 된 류 당선자는 앞으로 주된 25만명을 관할하는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봉은 18만달러이고, 사무실 운영비로 170만달러가 지원된다. LA 시와 비교할 수 있는 도시는 뉴욕시인데, 뉴욕은 인구가 840만여명에 시의원의 숫자가 51명에 달해서 시의원 1인당 대표하는 주민 수는 16만 명 정도가 된다.

류 당선자는 1975년 7월 23일 서울 출생으로 1981년 미국으로 이민을 온 이민 1.5세대. 그 후 혼버로 우스 중학교, 프란시스코 브리바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UCLA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경력으로는 한미연합회(KCAC) 봉사, 이번 보궐 전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보좌관, 케드론 병원 장부담당 디렉터 등이 있다.

LA 다문화 발 강자 미주타임즈 제공

미연방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를 위한 긴급 기도운동 시작

한인교계, “물맷돌 40일 기도운동”

미연방 동성결혼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 기도운동이 미기총과 KWMC, 미주성서화동본부 등 남가주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미연방 대법원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판결을 오는 6월 12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한인교

계와 단체에서는 최현영 신부, 박희민 목사, 송정영 목사,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한기총 목사(미기총 대표, 은혜한인교회 담임)를 대표로 박성규 목사(미주 성서화동본부 공동대표, 주님세운교회 담임), 강순영 목사(자비대교회), 김기동 목사(KC교회 회장), 김태오 목사(가세사

(TVNext.org 대표)를 부대표로 그 외 많은 교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이 판결을 저지하기 위한 “물맷돌 기도운동”을 펼치고 있다.

연방대법원에서는 이미 지난 4월 28일 동성결혼을 전국적으로 허용하고 각주해마다 연방법원으로 인정할 지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심판에 들어갔고 이제 오는 6월 12일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주한인교계에서는 5월 11일부터 6월 대법원의 판결이 날때까지 40일 기도운동에 들어간 것이다.

미연방대법원은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법안을 찬성하는 진보 측 대법관이 4명, 반대하는 보수 측 대법관이 4명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도파인 연설니 케네디 대법관의 의중

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케네디 대법관은 지난 4월 28일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동성결혼 합법화 공청회에서 “결혼의 정의는 이성 지속해 왔다”면서 “역사를 비추며 때 대법관들이 이 문제를 더 잘 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동성결혼 반대 입장을 보임과 동시에 “동성결혼도 결혼에 대한 종교적 관점을 지닐 수 있다”고 언급해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의중을 밝혀 최종 판결이 어떻게 될 지는 현재로는 미지수이다.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동성결혼 합법화 공청회에서 “결혼의 정의는 이성 지속해 왔다”면서 “역사를 비추며 때 대법관들이 이 문제를 더 잘 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동성결혼 반대 입장을 보임과 동시에 “동성결혼도 결혼에 대한 종교적 관점을 지닐 수 있다”고 언급해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의중을 밝혀 최종 판결이 어떻게 될 지는 현재로는 미지수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총회 2015 하계 수련회 공고

주제 : 일어나 빛을 발하라(60:1절)

이규필 목사
총회장윤석철 박사
총회신학대학원 총장정호석 목사
경남신학원전예희 목사
부총회장임상국 목사
서기주지말 목사
부서기사제석 목사
회의록서기박성석 목사
회의록부서기송인섭 장로
회계이정수 장로
부회계조영만 목사
총무

- 일시 : 2015년 6월 8일(월)~10일(수) (2박3일 / 접수 오후 4시)
- 장소 : 아산 토비스콘도
- 주소 : 충남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261-15
- 전화 : 041-541-5432

- 회비 : 1인 6만원(부부별도 추가)
- 노회후원 : 20만원 후원부탁
- 연락처 : 전예희 목사 010-7617-3331 / 김관호 목사 010-7788-0091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석철 박사경남신학원
학장 정호석 목사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총회
이사장 이규필 목사서울신학연구원
학장 박영석 목사
서울신학연구원 20-168
HP 010-5325-3893

본 합동보수교단은 보수교단으로서 뜻을 같이 할 교단과 개 교회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사무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가산동 151-47 동천교회)

☎ H.P 010-7474-3173, 02)854-1326, 496-0181(FAX)

세복협 제18차 세계산업인대회 성료

산업인의 미션, “天命無敗, 天命必勝, 天命完成” 주제로 열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천명무배).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산업인의 현장에 적용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은 성취된다(천명必勝). 산업현장에 성취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끝까지 전달(천명完成)하는 산업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제18차 세계산업인대회(이하 세복협)가 29일부터 31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성료되었다.

세계복음화전도협회(이사장 류광수 목사)가 제18차 세계산업인대회를 지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국내의 산업인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명무배, 천명必勝, 천명完成’을 주제로 열었다.

세계산업인대회 중앙회장 최화중 장로는 인사발에서 “이번 제18차 세

계산업인대회를 통해 산업인 전도 제자가 지금까지 받은 응답을 확인하고, 앞으로 받을 응답을 소망하며, 다짐을 시, 후대에게 전달할 역할을 불감고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회첫날 산업박람회장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오프닝공연 및 개회식을 진행했다. 중앙회장 최화중 장로의 개회선언, RUTC전임위원장 정은주 목사의 축사, 산업위원장 김동진 목사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또 국내의 18개 지회장과 영산업인회 글로벌 부회장을 임명하고 총 30여명의 대표선언, RUTC전임위원장 정은주 목사의 축사, 산업위원장 김동진 목사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또 국내의 18개 지회장과 영산업인회 글로벌 부회장을 임명하고 총 30여명의 대표선언, RUTC전임위원장 정은주 목사의 축사, 산업위원장 김동진 목사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명령은 절대 패할 수 없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천명무배를 바르게 깨닫고 이 사실을 모든 산업인이 각자의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적용해 하나님의 명령이 산업현장에 성취되는 축복 즉 천명必勝을 전달하는 천명完成을 할

창립 43주년 기념 2015 순복음춘천교회 세계선교대회 개최

주의 심장 가지고 일어나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자!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행사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순복음춘천교회(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담임 이수형 목사)가 창립 43주년을 맞아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본 교회출신 선교사들을 초청하는 “2015 순복음춘천교회 선교대회”(5월 31일(주일)~5월 1(화))를 개최하여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순복음춘천교회는 21일 금식 및 2시간 릴레이기도회(4월8일~5월1일)를 통하여 전성도들이 작정된 날에 공회하고 21일 동안 작정된 시간에 교회에 와서 한 시간씩 릴레이로 선교대회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선교대회 준비를 위한 21일 특별배려기도회를 열어 참예기에 나오는 선교에 대한 마음을 나누었다.



창단, 고운가부 목천안단의 오프닝 공연, 연합찬양대의 찬양 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 복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이수형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김주환 원로목사가 격려사를, 민경원 목사(선교국장)의 환영사, 최동운 춘천시장, 김진대 국회의원, 조남진 원로목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43년의 교회 사역의 발전과 선교사 사역에 대한 감사 후 이경수 장로의 색소폰 축하연주, 유기남 선교사(말타이선교회)의 인사말, 선교사 소개와 선교사들을 축하하고 세계선교사들과 선교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교인 한미음 체육대회(홀렐미데이)를 통해 교제와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선교국에서는 선교사들의 왕복항공료와 기타 체류에 필요한 모든 비용 및 소정의 선교 후원금을 지원 하였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알타이 선교회 한국대표를 맡아 사역하고 있는 유기남 선교사는 “참 다행하고 뜨거운 환영을 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선교현지의 어려움을 잘 이기고 있는 동료 선교사들을 볼 때마다 위로와 격려가 되며 서로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순복음춘천교회 이수형 담임목사는 “오늘 우리 교회 표어가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이다. 사람의 지경을 넓히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또, 전도와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이다. 지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23회 교정선교 사도상 시상식 열려

회장 박도식 목사는 시상식에서 5명에게 상장과 감사패 상금 수여

《대한교정선교회(회장 박도식 목사, 전 광주지방교정청장)는 9일 서울 중구 한국기독교교회 2층 강당에서 ‘제23회 교정선교 사도상’ 시상식을 갖고 임관비(인천구치소) 배제령(상주교도소) 교감, 이송환(화성직업훈련교도소) 김홍모(창주교도소) 김용필(광주교도소) 교무 등 5명에게 상장과 감사패, 상금 등을 수여했다.



이날 교정선교사제를 발표한 임관장은 매우 조찬기도회 및 1회 수송자 아버지회를 개최했고 분서선교회 ‘웃 리아프’를 만들어 전

수감된 수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등 종교를 통한 심성순화에 진력해왔다. 김홍모 교무는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수용자를 위해 기도하며 교정·교화에 헌신했다. 김용필 교무는 30여년간 아버지학교의 강사로 섬기면서 수용자들의 가정 회복과 교정생활, 교정·교화에 힘써 노력했다.

한국교정선교회는 1992년 고 이정찬(전 인천소년교도소장) 목사가 퇴직 기독교도관들을 중심으로 설립한 교정선교 전문기관이다. 사도상 시상식과 함께 수용자 간증수기 공모 및 발간, 교도소복음화를 위한 자선음악회, 예배와 상담, 생활 지원, 국민수용자들이 품는 사역을 하고 있다(02-588-7146).

해외함동 제37회 총회 총회장 피종진 목사 선출



한국교회연합 회원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해외함동(UKFC) 제 37회 총회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시 헨더슨 크리스찬교회 대강당에서 지난 5월 12~14일 개최돼

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일(화) 오후 4시에 개최된 총회는 중경총회장 김동욱 목사(필라노회)의 사회로 윤교진 장로(미주동부노회)기도, 김진철 목사(해외노회)성경봉독, 중경총회장 박오환 목사(서북노회)가 (교전3:21)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의 제목으로 은혜롭게 설교하였다. 이어 최나선 목사(미기종 차기 대표회장), 전승현 목사(삼태 한인회), 나성근 목사(노스캐롤라이나 한인 목회회 회장), 양복희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세계한인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축사

와, 총회장 조도식 목사(필라노회)의 인사말, 부총회장 피종진 목사(필라노회)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드리고 동남부노회장 김영민 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을 거행했다.

이어 열린 회무처리에서 새 총회장에 피종진 목사를 선출했으며, 한국과 미국의 동상에 입법과 지지총력을 하기 위하여 한미연합기관과 공동대회를 하기로 했다. 또한 네덜란드 김도원 선교사(동남부노회)의 파송과 선교보고, 지인의 페터데미숙에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기로 했다.

제 37회 총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총회장 피종진 목사(필라노회)
- ▲부총회장 김진철 목사(해외노회)
- ▲서기 김영민 목사(동남부노회)
- ▲부서기 유도형 목사(뉴욕노회)
- ▲회의록서기 유모세 목사(일본노회)
- ▲회의록부서기 김종환 목사(사카고노회)
- ▲회계 윤교진 장로(미주동부노회)
- ▲부회계 노정근 목사(워싱턴노회)
- ▲상임총무 김경순 목사(워싱턴노회)
- ▲총무 임주환 목사(미주서부노회)
- ▲협동총무 김영관 목사(동북노회)
- ▲간사(한미노회).



영종도 하늘愛찬

동충하초 오리요리 전문점

영종도 대표를 지나 인천시 중구 운남동 348-11(시장서명회)
전화: 032-752-5292 HP 010-5420-0153
사업자 등록번호: 121-18-32838 www.하늘애찬.kr

소문난 하늘에 찬은 친절과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하늘애찬.kr) 시판한 바 맛바람을 맞으며 영종도 대표를 지나 인천시 중구 운남동을 들어서면 한면 가면 다섯 차는 소문난 맛집, 최고의 맛 집이 있다. 그 유명한 보양식 동충하초 오리요리전문점 하늘애찬... 입구에서부터 주변경관이 온지 있는 풍경과 정갈한 인테리어로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게다가 깔끔한 음식솜씨는 미식가들의 환호와 찬사가 끊이지 않는 하늘애찬 동충하초 오리요리전문점(사장 서명회 여사).

170여석을 갖추고 30대의 주차가 가능하며 친절하고 서비스로 손님 최고의 VIP로 모시고 있는 소문난 맛집(www.하늘애찬.kr)입니다. 동충하초가 들어간 오리요리는 그 효능이 뛰어나고 맛과 조화를 이룬 보양식으로 소문이 나 있다. 당뇨와 성인병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아무래도 먹어도 물리지 않은 이로운 고기라고 자랑합니다. 동충하초(冬蟲夏草)의 효능에 대해 지난 있게 인정하며 추천합니다.
대표 서명회 여사

개혁총회 윤관 증경총회장 숙환으로 잠들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총회장 김영열 목사)는 증경총회장 윤관 목사(75)가 5월 4일(월) 저녁 10시 40분 숙환으로 잠들었다. 빈소가 마련된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중앙병원에서 개혁총회장으로 입속되었다.



총회 서기 조재호 목사 등 개혁총회임원이 임종을 지켜보았으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가운데 입관에 배를 드렸다. 오후에는 부총회장 장한국 목사와 대한노회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며 6일 오전 11시 총회장 김영열 목사의

노회에서 목사임직 받았으며, 1979년 삼일교회를 개척하고, 2005년 개혁총회 신학교 학장취임, 2008년 미국코헨대학 교육학박사 취득, 2008년 예장(개혁)총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72년 성경퀴즈사전, 성경대학교재 10권 발행, 성경66권 핵심교재 3권 발행, 79년 교육목회 지침서 발행, 그 외에 4년 조선신학교 교사로 10년간을 행한바는 등 많은 교재와 설교집을 발간했다.

대통령, 천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최초 방문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오후, 천안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최초로 방문하여 고용·복지 복합서비스 제공 방안을 둘러보았다.



고용복지+센터는 현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로서, '14.11.11 남양주센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0개소가 개소하였고, 금년에는 수원시, 파주시 등 30개소가 추가 개소될 예정이다. 고용복지+센터는 그간 고용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주민센터, 여성새일센터 등에서 분산 제공하던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one-stop으로 복합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고용복지+센터는 다른 일반센터에 비해 취업실적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1.31월 취업자증가: +센터 22%, 일반센터 9.3%), 전에는 없었던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가 약 2,000건(14.9~15.3월)에 이르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용복지+센터

가 고용·복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처간 벽을 허물어 서비스 질을 높여 국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모범사례라고 하면서 이를 지속 확산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또한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고용복지+센터의 복합서비스를 통해 제1에 성공한 두 명의 소감도 발표할 예정으로, 의료비 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상용직 일자리를 구했고, 알뜰중독인 남편도 센터 도움으로 직업훈련을 받아 부동산 사무실을 창업한 A씨, 무직상태인 남편, 간질환이 있는 아들, 우울증이 있는 딸 등 가족 모두가 의료·복지·취업지원 통합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아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B씨 등이었다.

주님의 지상명령 완수위해 세계교회 영적 동맹을

10/40창 선교지 및 국내외 목회자와 선교 지도자들, 선언문 발표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세계교회 영적 동맹을 위한 제3회 국제 콘퍼런스'가 10/40창 선교지 및 국내외 목회자와 선교 지도자를 포함해 총 2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2일 성광리에 막을 내렸다. '세계 선교를 위한 글로벌 연대와 협력' (Global Alliance and Cooperation for World Mission)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CTS 기독교 TV의 후원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의 협력, 따라서 인터콥선교회의 주관으로 BTJ열방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주님의 지상명령 완수를 위한 복음주의 세계교회들의 영적 동맹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갈수록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이슬람 운동과 안티기독교 운동은 지상명령에 저항하는 사단의 전략임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세계 영적 환경을 극복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하여 복음주의 세계교회들이 영적 동맹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김상복 목사(휘트트리나리신대원대학교 총장)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재림을 말하고 있으며 그 중 '조림'과 재림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가운데서 재림이 중요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에서 온 A목사는 필리핀과 바

에가 많은 이란에서 끝과 황상을 통해 예수께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의 간증과 눈물을 나눴다. 모두가 함께하여 하며 지금 필리핀으로 갈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세계교회가 기도해 달라'고 간구했다.

이 외에도 중국, 인도, 이집트, 요르단 등 10/40창 이슬람권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놀라운 부흥의 소식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완성을 향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됐다.

최성규 목사, 행복 컨퍼런스(성경7표7행복) 특강

한국교도국민운동본부 최성규 목사 총재 취임

최성규 목사(인헌순복음교회 담임, 성산초대원대학교 총장)의 '성경7표7행복 컨퍼런스'가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강사로 나선 최성규 목사는 '성경7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 부모·어른·스승 공경, 어린·청소년·제자 사랑, 가족 사랑, 나라 사랑, 자연 사랑과 환경보호, 이웃 사랑과 인류 봉사'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에 대해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격체이시고 완전한 분이시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섬리하시며, 삼위일체가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을 받았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영혼이 잘 되고, 병사가 영혼하고 강건하게 된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온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적순결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한 고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어른·스승 공경에 대해서는 '성경적 효는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아랫사람은 어른을 공경하며, 제자는 스승을 존경해야 한다'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며 '성실과 열심으로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부모님과 상의하고 결정하자'고 했다.

어린이·청소년·제자 사랑에 대해서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어른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존중하고, 스승은 제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어린이·청소년



년·제자를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로 봐야 한다'며 '그들을 논쟁케 하지 말고 겸손과 은유로 안내하며 가르쳐서, 신앙과 삶을 바르게 전수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나라, 가족, 교회는 밝은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 사랑에 대해서는 '천국은 가족이고 가족은 작은 천국'이라며 '하나님은 가족공동체를 귀하게 여긴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 최초로 만들어 주신 공동체다. 가족이 행복해야 한다. 우리의 가족이 바로 세 살상헌대, 축복헌대, 자손헌대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나라 사랑에 대해서는 '나라 사랑은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하나님나라와 더불어 대한민국에 속한 백성'이라며 '최고의 나라 사랑을 대한민국을 복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 사랑과 환경보호에 대해서

는 '창조기적 사명으로, 자연이 주는 혜택을 기억하며 자연과 주위 환경을 가꾸고 보호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연을 돌보고 육상할 것을 명령하셨다'며 '자연은 보호받은 만큼 다시 혜택을 준다. 교회가 자연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이웃 사랑과 인류 봉사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이 땅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몸소 섬기시는 모습으로 본을 보이셨다'며 '사랑과 겸손의 예수님을 따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할 때, 삼광과 복을 누리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내 이웃(인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김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성규 목사는 성경7표7행복 컨퍼런스를 마친 후 오후 5시 한국교도국민운동본부 총재로 취임식을 가졌다.

한편 최성규 목사는 성경7표7행복 컨퍼런스를 마친 후 오후 5시 한국교도국민운동본부 총재로 취임식을 가졌다.

한편 최성규 목사는 성경7표7행복 컨퍼런스를 마친 후 오후 5시 한국교도국민운동본부 총재로 취임식을 가졌다.

한편 최성규 목사는 성경7표7행복 컨퍼런스를 마친 후 오후 5시 한국교도국민운동본부 총재로 취임식을 가졌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 2015년 하기수련회 공고

주제 :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로워지는 총회가 되자



김정열 목사
총무노회(병설교회)



강성희 목사
경안노회(성광교회)



장한국 목사
(교육부장/대한노회)



조재호 목사
경기노회(우리교회)



도요한 목사
서울중앙노회



임순종 목사
대전노회(순신교회)



김재길 목사
부산노회



박민규 목사
대전노회(복음성교회)



조순형 목사
경기노회

- 일시: 2015년 6월 8일(월) - 10일(수) 2박 3일
- 주소: 강원도 속초시 사당골길43번 (속초 금호리조트)
- 주최: 개혁총회

- 장소: (속초 금호리조트) ☎ 장소문의 033)636-8000,
- 연락처: 서기: 010-6266-1331 ● 회계: 010-9621-9627
- 주관: 총회 교육부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연락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65 (읍내리 613-8)
총회장: 김정열 목사(010-4731-0391) 서기: 조재호 목사(010-6266-1331)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프스타일 총재
• 기독교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눈에 빛 성경: 잠언 29장 13절 찬송가 570장

본절의 눈에 빛을 준다는 것은 생명, 특히 육적인 생명을 지속케 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냐 의인에게 똑같이 빛을 비추신다고 하셨습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간에 그들의 생명이 지속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본절의 핵심입니다. 성경 속 눈(眼)에 대한 말씀이 많지 나오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이 바로보시는 영연애에 나의 눈길이가 가고 마음이 가서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제목: 왕 중의 왕 성경: 잠언 29장 14절 찬송가 185장

본절은 왕이 가난한 자의 억울한 사정을 잘 해결해 주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같이 바른 정치를 할 때 민백성의 추앙을 받으며 오래도록 왕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 지도자와 왕들의 정치는 모두를 만족와 행복을 주지 못하고 소수만 즐깁니다. 하지만 영원한 왕이시며 왕 중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왕이시며 영원한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로 우리를 날마다 가리시기를.

제목: 작은 천국 성경: 잠언 29장 15절 찬송가 555장

자기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 어떤 악한 습관에 깊이 빠져버린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자녀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 경우 방관하여 아이를 방치 버린 그 어머니의 무관심 죄는 그 가정의 수치 혹은 불명예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날 작은 천국인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자기 밖에 모르고 그런

사회에 대하여 우리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작은 천국인 가정을 회복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결국의 악인과 의인 성경: 잠언 29장 16절

인간의 수가 증가하고 문명이 발달 할수록 세상은 타락하고 인간은 서로를 부패시킨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많아질수록 파멸은 더 심각하게 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의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셨다고 말해서는 안되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악인들만 수치를 멸망에 떨어질 것을 믿으며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환란 날의 우리를 건지실 주님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내 자식을 징계 할 때 성경: 잠언 29장 17절 찬송가 525장

본절은 훈계와 질책을 통해 잘 교육된 자녀를 둔 부모가 누리게 될 축복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징계의 연단을 거치고 바르게 자란 자녀는 세상에서도 성공하여 부모의 마음에 영광을 줄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경의하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식인 '나'가 잘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인생 속에서 이 땅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호도하는 효자와 효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말씀을 지키는 자 성경: 잠언 29장 18절 찬송가 202장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것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 두 부류에 관한 언급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읽습니다. 그러나 평행으로 지키며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고 내가 순종함으로 지켜 갈 때에 말씀이 살아 역사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지 듣고 읽으나 지키지 않은 자 인지 내다나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을 주자로 가까이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종 된 자르바의 삶 성경: 잠언 29장 19절 찬송가 389장

본 절의 종이 이 같은 반응을 나타내는 이유는 종이란 대개 양심이나 사람이 아니라 마지못해 눈감아주어 일을 하라 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종이 그 상전을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배반하는 것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딤후 1:2).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대해서 뒷사람의 의견을 묵인하거나 뒤에서 합당하고는 있다면 우리는 한 바퀴 쉬어 생각하여 나에게 주어

진 상황 속에 뒷사람의 말을 생각하고 행하는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신중으로부터 오는 말 성경: 잠언 29장 20절 찬송가 262장

본절의 조급함이란 신중히 생각하되 보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마련입니다. 성경은 긍정과 부정의 측면을 막론하고 말이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에 대하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며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 부정적인 언어보다 긍정의 언어를 하고 복되고 좋은 말로 내 가정과 이웃을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바른 종 성경: 잠언 29장 21절 찬송가 336장

종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여 그의 어린 시절부터 멋대로 하도록 키울 경우 결국 그 종은 주인의 법칙 아들의 권리, 예컨대 상속권까지도 요구하게 됨을 뜻합니다. 종이 주인의 뜻을 가로세는 비행의 예는 모비딤의 사환인 시베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삼하16:1-4) 종은 자기의 주인의 말에 복종하며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살아가야 합니다. 비로소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섬길 때 높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목: 노와 성냄을 품는다면 성경: 잠언 29장 22절 찬송가 153장

분을 품고 노를 발동하는 것이 일종의 기질이나 습관처럼 되어버린 자가 있는 존재는 항상 다름이 있고 발화가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노와 성냄은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전인생의 성향, 기질을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노와 성냄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그것이 다름을 넘어서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노와 성냄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컨트롤 할 수 없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항상 나 자신을 채 복종시키므로 내 성격과 뜻된 습성이 되고 예수로만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교만과 겸손은 신 성경: 잠언 29장 23절 찬송가 467장

자기 자람은 수치로 인도하고 겸손을 영예로 이끈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교만한 자는 일반적으로 수치를 당할 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큰 멸망을 당해 왔습니다. 겸손이 영예로운 자리로 이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님께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겸손과 교만은 마치 시소와 같이 우리가 나뉘면 낮추면 주님은 높아지실 것이고 나를 높으면 주님은 낮아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제목: 증언에 앞선 자는 성경: 잠언 29장 24절 찬송가 357장

문자적인 뜻은 '병세 아래 있지만 감히 증언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것은 도둑의 공모자가 도둑의 범죄를 밝히는 증언대에 서서 진실만을 증언할 것을 맹세한 후에도 거짓말을 늘어놓기에 전전 공금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소한 인정 중 한 길을 따라야 할 경우 성도가 택해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사람보다 더 두려워 할 이 성경: 잠언 29장 25절 찬송가 96장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권력, 명성, 힘 그리고 부 따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겐 잘 보이지

위에 자신의 삶이 통제당하도록 내어 팔게버리는 경우, 그 묘한 압박감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옳은 길로 나아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해 내 모든 것을 맡긴 자만이 이 땅에서도 안전과 평안의 복을 보장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목: 일의 직적의 주관자 성경: 잠언 29장 26절 찬송가 285장

본 절의 은혜는 어떤 결정권을 가진 자의 개인적 친분, 호혜를 얻기 위하여 경경하듯 아첨하는 자들의 모습을 암시하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참 신뢰의 대상을 있게 하는 욕심과 압박과 비탈리, 그리고 불안정성 등의 노릇이 되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착함과 중간 끝이 동일하신 참 진리 되시는 살아계신 분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분께 비로소 내 삶을 맡길 때 참 자유가 있으며 그분의 그늘아래서 기쁨으로 춤추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목사코너

등불 들고 나간 열 처녀 비유(마 25:1-13)

하나님은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등불 되게 하신 후 각국의 간주에게로 보내고 켈리만 만나오게 보내시며 구원을 이루십니다. 또 오늘 말씀으로 등불 들고 신앙을 맞으려 나간 열 처녀 비유 통해서 더욱 우리 심령을 깨우쳐 주십니다.

마 25장 1-13의 내용은 한국 교회나 열 처녀는 오늘날 교회 또는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특히 13절 결론에서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 때를 모른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종말 교회·종말의 성도와 하나님의 종들이 곧 열 처녀를 계시합니다. 이 10 처녀가 등불을 가진 것은 그들 신앙을 나타내며 나쁜 하나님 말씀의 등과 성령 받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종말 성도들·종말을 기대합니다. 특히 신앙을 맞으려 나가고 있으니 주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혹자들은 이를 구원 고라다 마치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문 닫혀 못 들어갔으니 지옥 간 것이요, 현명한 다섯 처녀는 문 안으로 들어갔으니 천당에 간 구원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찌 예수 믿고 말씀과 성령이 출한 한 성도와 주의 종들이 지옥 갈 수가 있단 말인가? 이는 잘못된 해석이요 오직 주 재림의 신령을 맞이할 신부 성도의 모습을 계시한 예수를 본따야 합니다.

가진 것은 순교의 믿음에 선 그들이 기름통이 된 것이고 기름 열병을 충만히 받아 갖고 순교를 대비하고 있음이 증명되므로 가진 것을 계시합니다.

'함양'은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앙이 오니 맞으라.' 이 열 처녀 모두 신앙이 늦어지므로 졸며 자고 있었요. 현명한 처녀들은 이미 순교의 신앙에 들어갔으므로 순교시킬 주님 앞에서 인식하는 잠이요(행 12:3 이하) 베드로 잠자듯) 반대로 미련한 처녀들은 영적 체력의 잠이라고 봐지므로 한인종은 7년 한나 총 중간인 첫 3년 반의 때를 가리키며, 보라, 신앙이 맞으려, 함이 이를 바라보고 바라본 신자 순교하는 시련임을 지칭합니다. 이는 신장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는 7년 환난이 다 끝난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문 닫혔던' 처녀들만 환난시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순교할 믿음에 있는 현명한 다섯 처녀는 이미 준비하였던 자들이요, 그 믿음대로 순교를 다 하게 됐다. 문이 닫혔다. 함양은 순교의 문이 닫혔다 함이니 더 이상 순교 역사는 없게 됐음을 계시합니다. 결국 이 비유는 환난 통해 순교케 하여 그리스도 신부로 세우시는 비밀을 비유로 종말의 우리에게 계시해주십니다.



장한국 목사

주최교회 담임

소진우 목사 2013년-2015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기독교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칼럼리스트

2013년 7월	2013년 11월	2014년 3월	2014년 8월	2015년 1월	2015년 5월
1-3 은혜교회(장로회) 목사	4-9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3 불행의 축복대심방	3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21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4-7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7-10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11-13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4-6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4-6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10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10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15-19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18-20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11-14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11-14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15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15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21-27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18-21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18-21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20-22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20-22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28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25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22-25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22-25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25-27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25-27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29-31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2013년 8월	2013년 12월	2014년 4월	2014년 9월	2015년 2월	2015년 6월
2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8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7-10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2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5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3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3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9-15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1-14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3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0-12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7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4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6-18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5-17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0-12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5-17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0-12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5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9-21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8-20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3-14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0-22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5-17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6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2-24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1-23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6-18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5-27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0-22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7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5-27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4-26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9-21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8-30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5-27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8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013년 10월	2014년 1월	2014년 5월	2014년 10월	2015년 3월	2015년 7월
4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3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1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2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1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7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4-9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2-14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5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4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14-15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0-12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5-17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5-8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0-12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7-9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6-18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3-15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8-20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1-13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5-17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0-12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9-21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6-18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1-23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4-16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0-22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5-17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2-24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9-21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4-26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7-19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5-27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0-22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5-27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2-24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7-29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0-22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8-30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5-27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8-30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5-27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014년 2월	2014년 6월	2014년 11월	2015년 4월	2015년 8월	2015년 12월
3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3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1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1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1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4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2-14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4-6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2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2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2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5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5-17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7-9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5-8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5-8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5-8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6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8-20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0-12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11-13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11-13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11-13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7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1-23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3-15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14-16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14-16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14-16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8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4-26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6-18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17-19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17-19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17-19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9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7-29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9-21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20-22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20-22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20-22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10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2-24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23-25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23-25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23-25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11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5-27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26-28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26-28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26-28 천보산기도원(주최) 목사
12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3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4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5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6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7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8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19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0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1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2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3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4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5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6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7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8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29 열방부흥선교협의회(주최) 목사					

대한예수교 **예복교회**
장로회

예정대신(석수)서울중앙노회 제5회 정기노회 열어

임원선출은 정권위원을 소집, 신임노회장 최사무일 목사를 추대

대한예수교 장로회대신(석수)총회 서울중앙노회 제5회 정기노회를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베데스다교회(담임 박남선 목사)에서 정권위원의 주관으로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정권위원장 박남선 목사는 임원선출을 위하여 정권위원을 선정, 5분간 집회를 하고 중문을 모은 결과 최사무일 목사(치유선교교회)를 노회장으로 선출하고, 그의 임원을 선정 발표했다.

서울중앙노회는 지난 4월 27일 평의회로 교회에서 춘계정기노회가 개최되어 강도사 인하여 대한절차문제로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자 노회를 정회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하는 등 난감한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날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404호실로 자리를 옮겨 회의의 결과 이번 일은 노회정회로 대한 미숙함에서 온 결과였다 보고, 노회 공

금침령문제로 대해 당시 노회노회장 박남선에게 12차례 걸쳐 해명을 요구했으나,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노회를 파행 운영하고 회의진행을 방해했다고 했다.

노회는 이날 노회수습전권위원장 박남선 목사는 노회 목사를 불러 정기노회를 파행하고 공금침령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회의 수습과 대승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시한번 노회 목사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화합하는 뜻에서 신임노회장 최사무일 목사와 임원들이 노 목사를 만났다는 방침이다.

이날 노회에 앞서 오전 11시 전권위원장 박남선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장성기 목사가 기도하고, 박남선 목사(전권위원장)는 성경 왕상5:1~5를 중심으로 "교회는 곧 우상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한 후 축도로 마쳤다.

이어 최사무일 목사의 집례로 2부 상찬예식이 거행되었고, 3부 회무처리가 진행되었으며, 정권위원장 박남선 목사는 임원선출을 위



하여 정권위원을 선정하고 모임을 갖고 선출된 임원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서울중앙노회 제5회 신임임원장 노회장 최사무일 목사(치유선교교회), 남부노회장 박남선 목사(베데스다교회), 여부노회장 김순 목사(수락교회), 서기 장성기 목사(시내신교회), 회계 임규태 목사(목포발교회), 부회계 오동환 목사, 회의록서기 염두재 목사(인교회), 부회의록서기 최성재 목사(안산로교회), 감사 이규홍 목사(승리교회), 정세원 목사(기독교

회) 등이다.

4부 강도사 인하여서 노회장 최사무일 목사 인도로 이규홍 목사는 11:4~7절을 봉독하고 말씀을 선포했다. 아울러 김진호씨가 강도사 인하여 받았으며, 정세원 목사의 권면과 최 노회장의 축도가 있었다.

한편 서울중앙노회는 이종숙씨를 전도사로 임명했으며, 오영선 목사, 오유진 목사는 노회를 탈퇴했다. 노회장 최사무일 목사는 임원회에서 오늘의 문제에 대해 신문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새민련 여성 의원 25명, 김일성 생가에서 찬양

“위대한 수령님” 찬양한 위민크로스 지지 선언 논란

새정치민주연합 여성 국회의원 25명과 여성정치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맞는지?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이라든가 생각을 찾아가 찬양을 했더니...정신나간 여성들이 지난 20일 충북·만주부 인사들과 주축이 돼 논란이 되고 있는 '위민크로스DMZ'의 한반도 여성 평화걷기 행사를 지지했다.

특히 위민크로스 주도 인사들이 평양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체제와 김씨 일가를 노골적으로 찬양한 발언이 일러져 이들의 지지 선언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북한으로부터 비무장지대를 거쳐 남한으로 내려오는 이번 행사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면서 “안전문제에 의해 통일에서 개성을 통해 내려오라는 것 같은데, 비무장지대로 내려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서 통일부의 경의선 육로 입국 제안을 거절한 위민크로스 측을 무뎌두고 나갔다.

특히 유승호 새민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이번 행사를 참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이날 지지선언을 한 국회의원과 여성 정치지도자들은 24일 위민크로스 집회 행사에 참여했다.

지난 19일 평양을 방문한 위민크로스 주도 멤버들은 북한이 주관하는 환영연회와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 등을 관광을 했다. 특히 새민련 여성 의원들이 지지선언을 보낸 20일 위민크로스 멤버들이 북한 체제와 김씨 일가를 노골적으로 찬양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다.

메이리드 맥과이어는 이날 만경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일성 주석께서 탄생하신 만경대 고당집을 방문



하고 그이의 혁명적 생애에 대해 알게 됐으며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고 찬양했다.

제이교보 인은희 씨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주셨다. 모든 아이(김일성)의 수많은 업적 중 특기할 업적은 일제를 때려 부수고 조국을 해방한 것”이라고 노골적인 찬양을 쏟아냈다.

또한 이들은 경기여성연대와 평화화합대여성회 등 단체는 위민크로스당으로 해산된 옛 통일당보통의 해산을 반대하는 활동을 펼치고 내란선동 혐의로 수감된 이석기 전 의원의 무죄를 주장하는 단체다.

경기여성연대와 평화화합대는 여성회는 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명경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국가안보와 군비증강에서 국민의 안전과 평화협력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군비 축소, 5.24조치 해제 등을 촉구한다.

지난 3월 19일에는 이석기 단체인 민족자주화통일중앙회의(민자회), 조국통일방민족연합 남측본부(방민련), 우리민족연방계통민족회의(연방민족) 등 종북단체와 민가결양심수위원회, 민권연대, 한국진보

연대, 정교조, 민노총 등과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9월 23일 명동성당 입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고, 2002년 미군 여성성접촉자 사고에 대해 미군문란장 폐쇄를 주장해 왔다. 또한 찬양한 축적 도발 사건과 관련하여 2011년 3월 24일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시인과 사과를 남북국 사회단체의 정제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고 찬양한 축적 원인에 대해 납득할만한 추가조사와 검증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각자 음모론을 유포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재우정권 지지 반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씨와 함께 행사를 주도해온 정연진 의원은 종북보안론자, 논란으로 강제 출국된 제이교보 신은희 씨의 후원자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종북사인 민족통일노경남 대표와도 활발한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들 종북성향 단체는 평화를 위해 DMZ를 종단한 여성단체들은 경찰을 인질로 잡고 전화를 끊고 XX호를 하고 강판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아일랜드, 세계 최초로 국민투표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결혼 합법화 국민투표 결과에 환호하는 캐서린 자존 아일랜드 상원의원

아일랜드가 23일(현지시간) 국민투표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선거관리 당국은 전날 실시된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결과, 찬성투표 비율이 62.1%로 37.9%인 반대투표 비율을 웃돌았다고 발표했다. 국영 RTE 방송이 전했다. 국민투표는 “결혼은 성별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두 사람에 의해 계약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헌법을 고칠 지를 물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많은데도 이번 아일랜드 국민투표에 관심이 쏠렸던 이유는 국민투표로 동성결혼을 합

법화한 나라는 없었기 때문이다.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18개국이 의회 입법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과거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동성결혼을 국민투표에 부친 적 있지만 부결됐다. 이후 슬로베니아는 지난 3월 의회 입법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했다.

아일랜드에서는 국민투표 결과에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아일랜드 동성결혼 합법화 국민투표 결과 발표(AP=연합뉴스)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자들이 국민투

표 첫 개표 결과에 환호하고 있다. 여기엔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자리잡고 있었다. 국민 대부분은 자신을 가톨릭 교도라고 여긴다. 이런 까닭에 아일랜드는 서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가 1990년대 초반 일련의 아동 성추행 의혹들을 겪으면서 위상이 떨어졌다. 더불어 아일랜드 사회에 변화의 흐름이 이어졌다.

2010년대 동성 커플에게 결혼한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시민결합’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1천을 넘는 동성 커플이 시민

결합으로 등록했다. 또한 2013년 동성성향의 집권 통일아일랜드당 정부가 한발점보위회를 꾸려 동성결혼을 포함한 개헌 사항들을 검토했고 위원회가 동성결혼에 대한 국민투표를 권고함으로써 국민투표의 길이 열렸다. 보수성향 정당을 포함한 모든 주요 정당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찬성했다. 통일아일랜드당은 적극적인 찬성 캠페인을 벌였다.

반면 동성결혼 반대 캠페인을 벌여온 가톨릭 교회토론 추락한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복음주의 가톨릭교도와 신도인 연합은 마지막주 동성결혼 반대를 호소하는 9만명의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앞서 아일랜드 가톨릭 대주교 이온 마틴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헌법은 이성간 결혼에 대해 사회에서 부여하는 특별한하고도 영광스러운 지위를 없애 것”이라며 동성결혼에 반대했다. 그는 “지금까지 아일랜드는 생물학적 부모에 의한 양육을 고취하고 보호하는 게 아이와 사회를 위한 최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었다”고 덧붙였다.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을 환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총리 후보로 황교안 법무장관을 내정함에 대해 환영한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정치 개혁과 부패 척결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지표를 완수하기 위한 적임자로 평가된다.

특히 황 총리 후보자는 30년간 검찰에 재직할 당시에도 소신 있게 수사와 청렴 감직함으로써 법조계에서 두터운 신임을 쌓아왔으며, 법

무부 장관으로서 직임을 훌륭히 수행하는 등 정경협과 경륜이 풍부한 대표로 평가된다.

특히 황 총리 후보자는 30년간 검찰에 재직할 당시에도 소신 있게 수사와 청렴 감직함으로써 법조계에서 두터운 신임을 쌓아왔으며, 법

무부 장관으로서 직임을 훌륭히 수행하는 등 정경협과 경륜이 풍부한 대표로 평가된다.

왜 온 부정부리와,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성패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독실한 기독교인인 황 총리 후보자가 정권 총리의 사명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심을 추앞차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 서주시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지속

죄와 사망의 법과 율법에서 해방된 자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시기를

자유하리라



조연만 목사

약력
인하부고 10회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
총회신학교
국제신학대학원(M.Div., M.A.)
인천 시청 기독교신자 지도목사
인천 종합건설본부 신우회 지도목사
인천 연수구청 신우회 지도목사
사예장합동보수연합신교회 이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교단 총무
JTNTV 방송, 지저스타임즈 운영이사
CTS 경인방송 운영이사
현재 인천시장은교회의 담임목사

다음기예
시온의 딸들에게 애복을
http://cafe.daum.net/choyom.com

Contents

책머리에 _ 5

- 1장 새로운 피조물
- 2장 원수마귀의 거짓말
- 3장 새 언약이 하나님의 안에 들어갈 약속입니다.
- 4장 구원구원의 목적인 성전건축
- 5장 마음의 불평을 통한 영본
- 6장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나?
- 7장 거듭난 후에 성령세례!
- 8장 성령세례가 가장 큰 복입니다!
- 9장 사단의 통도인 입을 봉쇄하라!
- 10장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인가?
- 11장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 12장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 13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 14장 죄를 짓지 않아야 신부입니다!
- 15장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려면?
- 16장 전인권이 신부당장입니다!
- 17장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몸의 구원은?
- 18장 죄 사함과 의롭다하심
- 19장 거듭남이 생명의 시작입니다!
- 20장 누가 거듭남의 구원을 얻는가?
- 21장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라!
- 22장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 23장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 24장 행복한 성도가 되는 다섯 단계?

조연만 지음 / 15,000원 / **종문당**

유통처: 교보문고, 영문출판, 서울출판, 북출판사 등 전국 100여 대형서점
인터넷서점: yes24, 인터파크, 알라딘, 도서11번가, 리브로



전국 교회 주일예배 안내

☎ 게재문의 : 010-5468-6574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담임 이규필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30분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151-47
☎ 010-7474-3173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광교회

담임 전여의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 (032)505-3351

시온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동 1146-6 에스파스 B02호
☎ (070)7501-2584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소망교회

담임 서동기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 (02)3296-0340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강대일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 (02)433-0291(교)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담임 임상국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 (053)741-7732, 070-4220-7735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담임 서재식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 (031)315-8290대한예수교
장로회 월만한물가교회

담임 김인석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9시
오후 11시
오후 2시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46-9번지
TEL 043) 217-0191, 070-8666-0691대한예수교
장로회 수목원교회

담임 최순길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30분
수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시 교육관
매주 금요일아카데미 밤 9시 4층 교육관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343번지
☎ (02)2683-2091

(사)한국기독교개혁신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

서울시 구로구 구로1동 1058번지 구로우성@상가202호
☎ (02)869-0166 Fax(02)869-0167 이사장 011-287-0317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교회

담임 홍현구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한경총 사무총장
시도영상신학원 원장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 (02)583-1955 H.P. 010-7585-1955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흥교회

원로 임신형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7시 11시
오후 2시 5시

한경총 중흥총회장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0-2
☎ (02)476-7131대한예수교
장로회 과천영락교회

담임 허 석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한경총 중흥총회장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535-5 센스빌딩 4층
☎ (031)416-8290

은총 기도원



담임 jung moon-soon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 매일 새벽 주일-목요일기도회
(매일주영방부흥사회 주관)
○ 매일 새벽 주일-목요일기도회
(매일주영방부흥사회 주관)
(매일주영방부흥사회 주관)
(매일주영방부흥사회 주관)인천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 010-6327-0191, 070-7518-8195대한예수교
장로회 흥성제일교회

담임 오승순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 (041)634-0441(사무실) 633-6148(목양실)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산반석교회

담임 김중순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8시경기도 오산시 원동 845번지 양무프라자 801호
☎ (031)378-9349(FAX겸용), H.P 010-2378-9349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일교회

담임 이명우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 (031)714-1426, 7236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

담임 임혜연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9시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2
☎ (031)224-4947 H.P 010-4611-3221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박종욱 목사(무소속)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8-6
☎ (02)414-1191 H.P 010-3775-5154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로 박순중 목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평균병장-1급~3급 병환)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 (033)541-0687 H.P 010-7405-9191

강릉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 교회



담임 최현연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강릉시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6-12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담임 서병범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9시충남 공주시 이갈6-1(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 (041)853-9966 http://lov153.cafe24.com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권한근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7시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 (041)854-3676 H.P 018-320-1507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순춘 목사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884-202호
☎ (070)8632-6993 H.P 010-3035-5704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담임 소진우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9시30분
2부 오전 11시
주일저녁 오후 7시
수요일 오후 8시경기도 의정부시 노원로40 수락리비지티 2단지 옆
☎ (02)934-1232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담임 정기환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후 11시
3부 오후 1시
주일 밤 오후 6시30분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5번길 30-5
☎ (032)321-9109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현교회

담임 박형희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화요일 화요일성경공부
수요일 오후 7시30분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39-17
☎ (02)593-3909대한예수교
장로회 남현교회

담임 이문순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2부 오전 9시30분
3부 오전 11시30분
4부 오후 2시30분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46(개봉동)
☎ 교회(02)618-8877-8 당회장실(02)684-3317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생명교회

담임 박인연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00
수요일 저녁 7시00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236-4
☎ (02)385-2571/010-9621-9627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양동교회

담임 황인한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2015.4.1. 일어나 빛을 발하라(사60:1)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서울시 관악구 능동로17길 43(화양동)
☎ 교회(02)461-5975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제일교회

담임 이기연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영적대각성운동본부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일 밤 8:30경기도 광주시 목동 378번지
☎ 수양관 031)769-0692-3대한예수교
장로회 등불교회

담임 권영민 목사

예배(예배)총회장
등불교회 담임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예복부흥사관학교대표회장
지저스타임즈본사무국장
(인천지점,인부협사무총장)인천시 남구 능해길5(송의동)
☎ (032)891-0651, 010-2080-0651

영광교회 조강수 목사, 이웃초청 잔치 500명 모여

“오래오래 장수하세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서 예수 믿으세요”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천영광교회 조강수 목사는 지난 5월 21일(목)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영연초교를 방문하여 이웃초청 잔치를 성대하게

열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제육부음과 떡과 과일, 음료로 중식을 대접했다. 이날 영광교회 본당에서 조강수 목사의 인사말씀과 기도로 노년들을 위로하는 이웃초청 잔치가 시작되고, 한복으로 꾸민 단정한 영광교회 협시부 찬양단의 워십과 찬양으로 큰 절을 올리자 교회 안에는 벌써 노년들의 활짝웃음과 박수소리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날 영광교회 이웃초청 잔치가 무르익어지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인천광역시 서구 이학재 국회의원, 유종복 인천시장 부인인 채은영 여사, 김교을 전 국회의원, 방재선 교육장, 문선덕 구의원 등이 각각 순서에 따라 동단하여 지역 어르신들께 건강하시며 오래오

래 장수하시리라 인사의 말씀들을 전하고 행운권추첨으로 5만원이든 봉투를 7명에게 전달했다. 영광교회의 조강수 목사는 목사가 되기 전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힘들게 고학했었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우리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하고 시작한 일이 매주 주일 오전 11시 2부 예배를 드린 후 교회를 찾아온 신 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설산 3kg 1포씩 증정해 오고 있다면, 올해도 정성껏 준비를 했지만 2015년 5월에는 더 많은 금일봉과 더 값진 선물로 이웃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모시겠다며 인사하고 기도로 2015년 5월 가정의 달 경노잔치를 마쳤다.

이날 조강수 목사는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천국갈 수 있기를 권면하고 참석한 노인 500여 분에게 교회에서 마련한 선물세트들 증정 나눠드렸다. 한편 영광교회에서는 매주 목, 금요일이면 성도들의 정성을 다한 솜씨를 발휘하여 200~300명분의 국수를 대접한다. 때로는 김밥탕과 밤을 지어 대접하며 봉사하고 있다.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영광교회이다.

그 결과 인천 서구지역과 인근 지역에서도 영광교회가 좋은 교회라며 소문이 나 있으며 매주 목, 금요일과 주일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며 식사를 하고 돌아가신 어르신들은 교회를 가려낸 영광교회로 가려내 전도를 한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을 이사를 온 분들에게 영광교회를 소개하며 좋은 교회, 좋은 목사라며 조강수 목사를 자랑하고 있다.

아울러 조강수 목사는 매년 전국에 있는 기도원과 교회의 초청을 받고 집회를 인도하는 부흥강사이며, CBS, CTS, JTNTV방송 및 지저스타임즈를 통해 국내, 5대양 6대주를 향하여 설교말씀을 전파하고 있다.

또한 조 목사는 JTNTV방송 및 지저스타임즈 이사장이며, 한국인문부흥사업회의 대표회장으로서, 수십 명의 부흥사들과 함께 국내외 집회를 인도하고 농어촌과 중소도시 부흥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주사랑교회 춘계 야외예배로 전교인 축제이장

청, 백팀 나누어 바통터치 이색릴레이, 줄다리기, 보물찾기 등 웃음꽃이 넘쳐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사랑교회(담임 장한국 목사)에서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광천자유공원에서 주일학생들을 비롯해 전교인 야외예배를 드리고 체육대회를 열어 승리한 팀은 진 팀을 향해 위로의 박수를, 진 팀은 이긴 팀을 향해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등 전 교인 친목과 화합으로 유쾌한 의미를 거둔 가운데 교회에서 마

련한 각종 상품 등으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5월 5일 오전 9시 30분 주사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는 개회예배를 통해 마음을 정했으며, 9시50분 스트레칭을 시작으로 청, 백 팀으로 나누어각종 게임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박수로 응원을 하는 등 전교인 친목과 화합의 장이 되었다.



끝으로 전 교인 참여로, 보물찾기와 시상식을 갖고 장한국 목사의 개회예배가 드려진 후 광천자유공원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교인들이 쓰레기 수거를 하였으며, 식당으로 옮겨 중식을 즐겼다.



피종진 목사 6월 국내·외 성회 일정

11월~4월	영국 70주년 제국특별자치선교대회 및 수련회 주축 (사)한국기독교부흥회(대표회장 최명식 목사) 영남총회(대표회장 김기중 목사) ☎031072-9113 (대표회장(Philippines) 선교40주년 연합회 (대표회장 권대규 목사) ☎ 83-920-901-6041
5월) 오후 8월) 오전	파주 세계로관현교(주)성인 목사 ☎031949-9121 (13일) 오전 파주 테라리크교회(장학원 목사) ☎ 010-5284-4275 (14일) 오후 대전 주안교회(장학원 목사) ☎011631-7276
9월) 오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장학원 목사) ☎021223-3243
15월) 오후	서울 강남교회(장학원 목사) ☎021555-0712
15월) 오후	연세대학교 총동문 회차부흥회(장학원 목사) 수련회 (16일) 오전 국제법외교대학(장학원 목사) ☎ 010-4288-5028
19월) 오전	경기도 광주 상산교회(장학원 목사) ☎ 010-2235-3927
22월)~24월)	제19차 세계교회협의회(WCC) (대표회장(Philippines) 선교40주년 연합회 (대표회장 권대규 목사) ☎ 83-920-901-6041
25월)~26월)	미국(U.S.A) 연립성회
29월)~7월)	미국(U.S.A) 연립성회

주: Nysic World Mission(주) 주: Nysic World Mission(주) 주: Nysic World Mission(주)

이 시대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심'



〈2015 성령한국 청년대회〉 5월 29일(금) 저녁 7시 30분 광림교회에서 개최

〈2015 성령한국청년대회〉가 '회심'을 통한 '전심의 회복'을 비전으로 삼고,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광림교회 본당에서 개최된다. 오케스트라와 밴드 합연에 라이어 합창이 더해진 영광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박성민 목사(CCC 대교), 김경석 목사(광림교회)가 '회심'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지성적 회심, 감성적 회심, 외적 회심에 관한 말씀을 선포한다.

그리고 오순절 디레방에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그들의 삶이 이전과는 180도 다른 삶으로 변화된 것처럼, 말씀 선포 후에는 집회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2015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열리는 5월 29일, 그 날을 맞이할 때까지 '2015 성령한국청년대회'를 위한 기도모임이 광림교회에서 5층 제3세미나실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리고 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뜨겁게 〈2015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준비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를 행복하게

교회를 성기는 분들

담임목사 : 오성환 목사
부 목사 : 오성환 신임 오성환
파송신사 : 임재선 김은미 김미경 안윤기
장로회 : 김진희 김진희
전 도 사 : 추경희 배순단 전만수 윤영욱
사무장 : 고재현 송영민 전만수 정영민
이현필 주종필 김경서 김경구
김정민 김진호 안현희(목회)

운전장 : 노남규
장로회 : 이영희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Mokpo Ju-an Presbyterian Church

본교회 : 목포시 정호로 159(북동동)
TEL : 061-272-4908 FAX : 061-278-0693
남력배당 : 목포시 남력로 52번길 남력크리스티안스 301
TEL : 061-287-0692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표어 :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 전도사 : 장성철, 현송이
• 반주자 : 한진경, 현송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예배	오후 2시	학원회	토요일 5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분	성년회	토요일 6시
새벽예배	새벽 5시	아산교역부	토요일 11시
금요일예배	밤 9시	남천교역부	대림절, 저녁 6시

담임 장한국 목사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초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
선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7층
☎031424-7612(주) HP 010-4436-7060 홈페이지 : http://jcn.kr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표어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표어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행함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예/배/시/간/안/내
새벽 예배 : 새벽 6:00
주일예배 : 오전 11:00
주일후예배 : 오후 2:00
수요예배 :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 오후 7:30

2015 표어
선교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경기도 덕양구 화신로 260번길 66(화정동5층)
화정버스터미널/전철 3호선 화정역 1번출구
☎ 031)974-7091

日本, 그리고 獨島와 韓國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

일본은 독도의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독도에 대해 그 주권에 대한 재판 청구했다. 일본은 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포에 의의를 제기한 이후 계속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펴왔고, 54년 9월 25일 독도 문제를 ICJ에 가서 최종 결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한 달 뒤인 10월 28일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엔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변명당 당시 외무부 장관의 '아츠크구서(我祖遺書)'라는 제목으로 3장의 영문본에 한글 번역본이 첨부된 이 구상서는 이때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 정리한 문서로서, 독도에 대한 어째 오늘날 정해진 게 아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 영토다.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법화하면서 시종 일관한 주장에 대해 우리 국민은 일본이

와 동일한 방법의 침략을 반복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다.'고 했으며,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며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우리정부의 기본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이를 근거로 변장관은 '한국 국민에게 독도는 일본과 상대한 한국 주권의 상징이며, 또 한국 주권의 보전을 시험하는 실험이다. 한국 국민은 독도를 수호하고 한국 주권을 부당한 결의를 갖고 있다.'고 선포하고, 이 문서에서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서와 함께 발표된 설명은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영토의 닻이다. 이것을 잃고자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

하는 것은 한국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전했다. 그 후 우리 정부는 독도에 경비부대를 상주시키고 한국 영토라는 표지를 세우며 대응했다.

이번 김성환 외교부총장 장관이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서한을 반송키로 한 결정에도 중요한 준거가 됐다. 한다. 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살아있는 아기와 죽은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의 아기라 한다. 살아있는 아기의 주인은 하나이며 자신의 아기가 아닌 여인은 저야 본편이다. 여기에 서 솔로몬이 아기를 물로 나눠 반씩 나누



최순실 목사
본지 논설위원
(수목교회)

라 하니 산 아이의 어머니가 견디지 못하고 우선 아기를 살리려는 마음으로 그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소서 라고 한다. 이에 솔로몬은 하느님이 주신 재물로 올바르게 한다. 지금 국제사법재판소(ICJ)에는 솔로몬이 없다. 때문에 그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일본이 한반도에 남긴 상처는 나라를 짓밟은 일로 20세기 최악의 일일 수 없는 만인도적 범죄 범주에 포함시켜야 마땅한데 전범으로 독일 히틀러는 자살했고, 이탈리아 무솔리니는 처형됐지만, 히로히토는 살려주었다.

사실 히로히토는 1931년에 시작된 전쟁을 용인하고 지휘했으며, 민주사변을 용인했고, 진주만을 공습한 뒤에는 대본영에서 전쟁을 지휘했다. 전쟁의 패색이 보이던 1942년, 일본의 외무장관은 항복을 권했는데 이를 계속 거부함으로써 수백만 명을 더 죽게 하고 인자폭탄 투하를 불러들인 장본인이다. 그가 죽은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전범으로 인류에 미친 어마어마한 죄상을 들어 극악의 처벌을 가할 수 있다면 좋으리라. 1 다음호에 계속

동성애(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며...

국내 동성애자들에게 6월은 축제의 달이다. 서울시가 동성애자들의 문화 축제인 '퀴어문화축제(Korea Queer Culture Festival)' 2015를 서울광장에서 사용할 허가하여 6월9일부터 성소수자의 권리를 요구하며 대규모의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동성애자들에게 내준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기뻐하시며 제일 먼저 만든 것이 가정이다. 하나님은 혼자 사는 아담의 모습이 좋지 않다고 보고 하와를 만드셨다(창 2:18~25). 남녀결합은 인간의 본성이며 창조 원리이다. 그런데 그 신성한 가정을 깨는 것이 동성애이다. 성경에서 동성애는 분명히 죄의 결과며, 성적 타락의 대표적 모습이라고 지적한다. 만년에 동성애가 확산이 된다면 '성욕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창 1:28)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로 오는 피해를 무엇보다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이 세상에서 인류가 사라지게 하는 악한 일들이 아닌가?

탈 동성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동성애의 어려움은 그 선택으로 오는 사회적 편견이나 법률적 제재는 물론 불분명함으로 인한 도덕적 양심의 가책 속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고귀한 청춘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증언한다. 뿐만 아니라 그로 발생될 수도 있는 심리적 기복과 정신적, 생활학적 문

제로 고통 받을 뿐만 아니라 에이즈, B형 간염, 임질, 매독에 감염되어 평생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동성애자의 생활로 인하여 사랑하는 부모형제와의 불화로, 가정이 파괴되는 아픔과 함께 가족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대가치 병폐를 곧 질병과 가정파괴와 고귀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음란의 율령으로부터 생명보다 소중한 우리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성애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동성애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탈 동성애자들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씻음으로 동성애를 탈출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대다수의 동성애자는 타고난 게 아니라 선택적이며, 성적 타락의 대표적 모습이라고 지적한다. 1990년대 이후 동성애 유행론자 사이에는 성경이 동성애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자유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그중 일부는 '하나님이 나를 동성애자로 만드셨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그러면서 주장하기를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십자가 '원수도 사랑하라' (마 5:44)고 했으면서 공허의 마음으로 가짜야 한다며, 사회적으로는 '인권' 차원에서 동성애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에 남아 머느리와 여자 사위를 맞이할 수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아들에게 남아 머느리를 배우자로 삼아서 결혼시킬 수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딸에게 여자 사위를 배우자로 삼아 결혼시킬 수 있는가?



박동호 목사
(사)한국기독교독교도교단협의회
상임회장

딸에게 여자 사위를 배우자로 삼아 결혼시킬 수 있는가? 지난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에 '성지향' 즉,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 지향과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을 삭제하라고 하다가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데, 이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한국 교회의 반발로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의 입법적 요구는 결국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세계적으로는 지난 2011년 네덜란드와 최초로 이를 합법화 한 이후 2014년 현재에는 16개 국가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상태다.

이와 같이 동성애는 악한 영들의 역사로 이미 우리생활 문화 속에 침투하여, 학교와 직장 등에서 우리자녀들의 성장체상을 무너트리고 있다. 이미 간병과 합법화된 현실 속에서 동성결혼자들은 미국과 유엔의 힘을 입어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실현코자 동성애 퀴어축제에 확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 즉, 동성애를 합법화할 경우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못하게 된다. 특히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교회와 목사가 양

벌 받게 되어 있다.

동성애, 동성혼이 윤리적, 성경적으로 나쁘다고 교육하거나 설교할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을 지게 되어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강한 기간 내에 시정 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외에 있다.

성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 등과 같은 일련의 법제와 움직임에 대해서 한국교회 가 수수방관하는 자세나 침묵이나 무관심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방관하거나 배타적인 태도로만 일관하는 동안 최근 동성애자들의 세력과 조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기독교인들까지도 동성애를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어 동성애 문제에 대해 설교가 더 이상 뒷질만 지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미국교회에 '동성애 이슈'로 혼돈과 갈등이 증폭되어 가고 있다. 미국 장로교 PCUSA(The Presbyterian Church USA)마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도 실패한 동성애 문제를 막아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케이팝(K-pop)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 한국에서 동성애를 막지 못한다면 그 파급은 전 세계에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마저 무너지면 온 세계가 동성애 찬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퀴어 문화축제를 반대한다.

빅티메 파스칼리

고대 성가장 빅티메 파스칼리(Victime Paschali)는 그레고리안 성가에서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운 성가를 말한다. 그레고리안 성가는 4선음으로 4세기에서 14세기 까지 1000년 동안 이어온 유명한 시경가의 곡이다. 다윗왕은 예루살렘 성전 에 4,000명의 성가대원을 세워 시편 가를 연주하도록 하였다. 예배에는 반드시 레위 제사장이 집전하였다.



서영용 목사
유린교회 목사
(삼양이사)

오늘 우리의 정치 현실을 보면 내일이 없는 오늘을 살고 있는 느낌이 든다. 지난 4월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로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진 것이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치인 모두에게 실망했다.

삼에 있어 선형은 감추어지고 악행은 나타나는 것이다. 악행은 인간의 총족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사회는 청렴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청렴이라는 단어조차 없어지고 있다. 모두가 상대를 짓밟고 내가 앞장서자는 것이다.

정치인을 비롯해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 앞에 청렴하겠다는 굳센 의지를 선포한다면 국가의 희망정국이 될 것이다. 자진 사퇴한 총리에게 위로의 말을 보내자.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가 있다고, 다시 용기를 갖고! 국민적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한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움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방심죄의 군인 부패자수로 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다. 전장을 위해 들어온 최신 무기가 작동에 이상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한 군대내부의 부패 척도가 너무도 아이러니하게도 부끄러운 상황이다.

사회속에 반체제들은 정의의 칼을 쓰고 앞장서서 머리띠를 두르고 정의를 부르짖으며 국민들의 심리를 속여 자리 잡게 하고 있다. 자유민주 연구원의 집계에 의하면 국내 중북단체 핵심그룹이 30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북추진세력이 160여개 조직으로, 최정호호 세력이 1500여개로, 대규모의 중북과정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는 6·25전쟁 65주년을 맞고 있다.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수많은 희생자를 내었다. 공산파괴 집단의 무한한 만행 학살을 잊어서 안 된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안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국내에 잠입해 있는 모든 중북과정세력을 철저히 색출 제거하여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들은 정치, 경제, 종교 군대내부에까지 잠입하여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중북과정세력들은 북한을 위해 제2전선을 구축하려 발상을 자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북한이 남한에 큰소리를 지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치밀하게 눈여 봐야 한다. 겉으로는 정의와 대화를 하지만 기만만 되면 제2의 남침을 시행 할 공산집단이다. 2015.5.24, 북한제 조지 이후 정부지원하기로 지난 4.29일 우리 민간 조직 단체에서 대북지원으로 비료 등 농자재를 20대 트럭을 북한에 보냈다. 물론 통일부의 문을 열어보자는 의지로 평가된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에 퍼주기식 대화를 해왔으나 변한 것은 없다. 오직 전쟁을 위한 군사무기를 확장시켜 준 것이다. 북한에 퍼주지 않는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힘은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 강력한 국방과 최선무기 확정으로 국방과 국방에 있어 G3국가 이상의 힘을 만들어야 이웃 일본이나 중국 또한 북한의 오만과 얕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장 강력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를 만들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빅티메 파스칼리의 아름다운 국가를 이루어 나아가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양동교회

2015 표어 : 일어나 빛을 발하라(사60:1)



남원찬 목사

설교는 분들

원로목사: 홍만재(Senior Pastor)

담임 목사: 황원찬(Pastor)

장로: 김경진, 유근수, 윤호영, 정진수, 조영명, 정현영, 이종식, 김민철, 현성열(한인)

목사: 박정호(장로회), 최성호(장로회)

합동목사: 권오현(장로회), 정영호(장로회)

전도사: 이종식(장로회), 정영호(장로회), 이종식(장로회), 정영호(장로회)

미주교회: 김경진(장로회), 정진수(장로회), 정영명(장로회), 정현영(장로회)

1830 AGUIRO ST. ROWLAND, HTS CA 91746 USA

선교사: 전종국, 데이비드(장로회), 김희진(장로회), 정영호(장로회)

원로목사: 윤원배(장로회), 정영호(장로회), 정영명(장로회), 정현영(장로회)

지회: 한성회

찬양인도: 맹현진, 이종식, 정영호, 정진수, 정영명, 정현영, 남지혜, 박종현

주: 전현영(장로회), 정영호(장로회), 정영명(장로회), 정현영(장로회)

합동목사: 권오현(장로회), 정영호(장로회), 정영명(장로회), 정현영(장로회)

예배시간 및 모임안내

주일 1부 예배 주일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주일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주일오전 2:00

세례 기도회 매일오전 5:00

성일 저녁예배 성일오전 7:00

금요일아침기도회 금요일오전 9:00

금요일저녁예배 각구분별

새신자강목요일 주일후 12:30-1:00

축주신교회 주일오전 4:00

영아·유아부 예배 주일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주일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9:30

중·고등부 모임 토요일오전 4:00

대학 부 모임 주일오전 11:00

대학 부 모임 토요일오전 9:00

청년부 모임 주일오전 11:00

청년부 모임 토요일오전 9:00

말씀교제 모임 주일후 12:30-1:00

프로필

안성대학교 신학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종교교육학과

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교 석사

미국 이주(미주)신학교 석사

미국 리플렛신학교 석사

안성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서신총회장

합동목사

서울 광진구 능동로17길 43(화양동)

대표 E-mail: hwayangchurch@hosanna.net 홈페이지: http://hychurch.kr

교회 TEL: 02-461-5975 Fax: 02/464-5502 (부설기관/화양어린이집 02/464-5522)

표어 : 창세로부터 주님재림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소향

성령충만
과 함께하는 365일

2015 찬양의 밤

06.13 SAT 5:00

인천영광교회 (담임 조강수 목사)
032.575.1654 www.youngkwang.net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36 (가좌4동 4-24)

티켓구입 및 문의

- ▶Ticket(1): 만원(소향 CD 앨범 포함) (500매)
▶Ticket(2): 사연 제출시 무료배부 (100매)
▶Ticket(3): 당일 선착순 무료배부 (100매)
문의전화: 032.575.1654



당회장 조강수 목사
Pastor Gang Soo Gho

• 조강수 목사 약력
해신교회 부목(1987)
인천기독교총연합회 1부(1990)
인천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인천영광교회 담임(1993)
CBA이동목회 대표회장
인천기독교목회자연합회 대표회장
기타 방송 및 지저스타임즈 3대 이사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영광교회 섬기는 이들

부 목 사 : 이주홍
현역선교사 : 김종복, 이두원, 차영호, 권오철
장 로 : 임창수, 이청옥, 심재현, 김준현, 고재호
심방전도사 : 원영숙
교육전도사 : 이만규
전 도 사 : 안송숙
성 가 대장 : 심재현
지 휘 : 박성진, 왕소정
반 주 : 권해영, 조은지, 박진주, 이요한

예배시간 안내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 예배 11:00	학생부 예배 (토) 오후 4:30
주일 찬양 예배 오전 6:30	새벽 예배 오전 4:30	주일학교 예배 주일 오후 1:00	청년부 예배 (토) 오후 7:00

▶ 영광교회 찾아오시는 길



축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및 임원 명단

교 분	명예이사장	이사장	사 장	대표이사	사무국장	상임이사	수석상임이사	수석상임이사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지문	지문
이훈은 목사 (화정중앙교회 원로)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담임)	조강수 목사 (영광교회 담임)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정기남 목사 (법정인)	곽영민 목사 (예복부흥사원 대표회장)	박한규 목사 (성원교회)	황원찬 목사 (예장대신총회장)	박형취 목사 (성원교회)	이규필 목사 (합동보수총회장)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정대성 목사 (삼정중앙교회)	전예희 목사 (성광교회)	곽에스터 목사 (국제유치기독교원 원장)	이법성 목사 (한기보통 대표회장)	허 식 목사 (강북총회 총무회장)	이 식 목사 (우리교회)
자문	자문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양우 목사 (중부지사장)	최순길 목사 (수목교회)	곽동훈 목사 (대선총회 부총회장)	홍창표 목사 (영광총회 사무총장)	박동호 목사 (한일교회)	최나현 목사 (산성그리스도교회)	박윤숙 목사 (주상왕대교회)	임태수 목사 (수원대교회)	이기환 목사 (포항대교회)	서명범 목사 (공덕교회)	곽안근 목사 (두란노교회)	이상중 목사 (사동교회)	이기용 목사 (영광제일교회)	김상익 목사 (산동교회)	김창기 목사 (신성교회)	임순중 목사 (문성교회)	조재호 목사 (우리교회)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조영만 목사 (사온교회)	박종만 목사 (취재부장)	박문자 목사 (그리심교회)	주은총 목사 (은총기도회)	정원준 목사 (순천대학교학장)	김부경 목사 (강보리교회)	송미순 목사 (영주교회)	최계 유순옥 목사 (조계정교회)	박수영 목사 (대구명복교회)	김능주 목사 (오산반석교회)	임미상 목사 (해스 G-리더 대표)	김종현 목사 (군산지사청)	한사라 목사	김창숙 교수 (무이우리회)	백운성 목사	배정희 목사 (임원교회)	



지저스타임즈 홈페이지 <http://www.jtntv.kr>
경기 부천시 오정구 지암로 176번길 33(대운빌라 202호)
대표전화) 070-8230-0034, 032-672-3031(팩스겸용)

대표이사: 010-5468-6574, 사무국장: 010-2080-0651
e-mail: jtntv@hanmail.net 웹하드: I.D-cpjkr, P.W-3583